

불협화음을 내는 공존

- 2026 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 감상기

최치원 회원

도시의 빈 곳을 전시장으로 쓰는 부산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는 짝수 해마다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전이다. 1981년 부산 지역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 바다미술제, 1991년 부산야외조각대전이 통합되어, 1998년과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거쳐 2002년부터 지금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처음부터 이 행사는 미술관 화이트큐브보다 도시 자체를 전시장으로 삼는 방식을 택해 왔다. 문을 닫은 공장, 오래된 원도심, 항만의 유휴 공간이 전시장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도시가 감춰 온 시간을 기록해내는 것이 이 비엔날레의 오랜 화법이였다. 올해도 그 화법은 이어져서 옛 선박 창고와 옛 고등학교가 각각 조선업과 교육이라는 산업과 제도가 이 도시에서 한 시절을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었다.

올해 주제는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이다. 공동 전시감독 아말 칼라프와 에블린 사이먼스는 이를 화음이 아니라 다성(多聲, 많은 소리)이라고 설명한다. 합의와 조화로 수렴하는 합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과 언어가 부딪히면서도 함께 울리는 합창이라는 뜻이다. 두 감독은 ‘부산은 바다 소리, 여객선음, 도시 소음, 강렬한 노동운동의 역사와 민중가요로 가득하다’고 말하며 ‘노동요에서 클럽 사운드까지, 침묵 당하기를 거부하는 소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밝혔다.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영도 봉래동의 100년 된 옛 선박 창고 스페이스 원지, 그리고 강서구로 이전하며 비게 된 옛 부산남고등학교, 세 곳에서 22개국 46개 작가팀의 작업이 세 개의 악장처럼 나뉘어 펼쳐진다. 을숙도의 1악장은 생태와 돌봄을, 영도 스페이스 원지의 2악장은 항만의 노동과 이주와 저항을, 옛 부산남고의 3악장은 교육과 권위와 규율을 각각 다룬다고 설명한다. 영도에서는 임민욱의 신작 <S.O.S-불나비>가 한국전쟁 피란지였던 영도에서부터 2011년 김진숙이 309일을 버틴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까지 이 도시의 저항의 소리를 이어 붙인다. 한 사람의 외침이 희망버스를 통해 합창으로 겹쳐졌던 그 사건은, 이번 비엔

날레가 말하는 ‘불협하는 합창’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혼자서는 닿지 않는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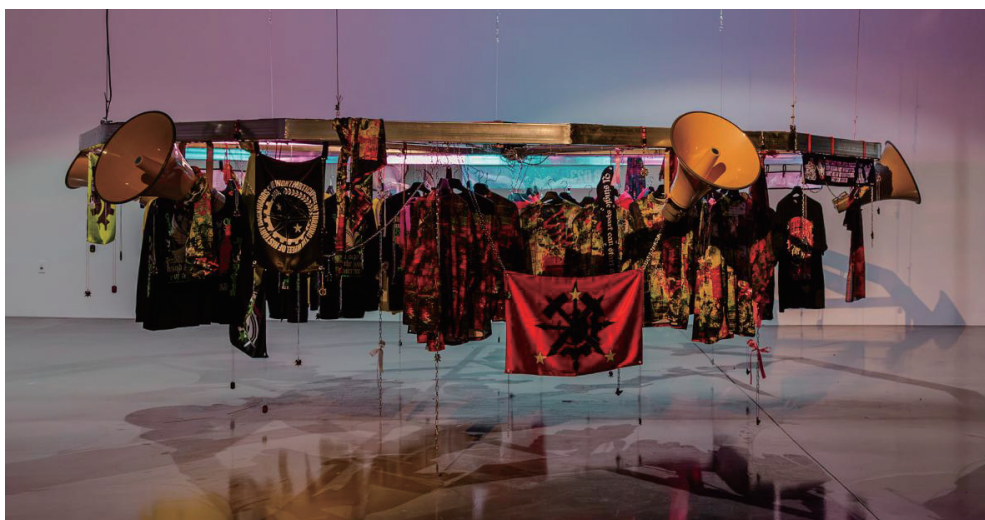
화물이 오가고 노동의 땀이 배어든 100년 된 창고 ‘스페이스 원지’에는 필리핀 작가 조 아르 송쿠야의 <선원직 프로젝트>가 있다. 그는 실제로 선원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부산에 기항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는 참여 작가로 이 도시에 돌아왔다. 선원의 노동은 육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배에 탄 사람들뿐이다. 갑판 위의 노동과 일상을 그린 회화와 드로잉, 사운드 100여 점이 항해라는, 배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시간을 하나의 아카이브로 고정해 놓았다. 그 가운데 일부 드로잉은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업을 거쳐 교통카드 디자인이 되었다. 전시장에 걸려 있던 선원 한 사람의 하루가 이제 이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손 안에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그 옆에는 벨기에 작가 브라힘 탈의 사운드 설치 <불협화음의 합창: 바다의 창조>가 있다.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키에 맞춰 세운 19대의 스피커에서, 작가의 친구와 가족과 협업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바다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하거나 시로 읊는다. 스피커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관객이 늘어날수록 그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겹쳐지면서 개별적인 소망들이 하나의 합창이 된다. 작가는 이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의 제목이 비엔날레의 주제와 같은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송쿠야의 그림들이 없었다면 한 선원의 노동은 항해가 끝나는 순간 사라졌을 것이고, 탈의 스피커 하나 하나는 그 자체로는 그저 한 개인의 사적인 바람일 뿐이다. 어떤 사실이 사회적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두 작업은 나란히 보여준다. 하나는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기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록들이 서로 겹쳐 하나의 소리로 인식될 만큼 쌓이는 일이다. 기록은 사실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실이 사라지지 않게 붙드는 성실한 작업이다.

화음이 아니라 다성으로

전시장을 돌고 나오면 솔직히 혼란스러운 느낌이 먼저 든다. 생태와 돌봄, 항만과 이주, 교육과 권위라는 서로 다른 주제가 장소마다 나뉘어 있고 작품마다 문제의식도 달라서,



▲ 태국 작가 타낫 티라디콘의 '기억의 문턱: 혼돈의 공명'. 출처: 비짓부산

이것이 과연 하나의 전시가 맞는지 되묻게 된다. 그런데 그 혼란 자체가 이번 주제에 부합한다. 감독들은 애초에 화음이 아니라 다성을 말했고, 관객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소리들을 그대로 안고 나가는 것이 이 비엔날레가 의도한 상태에 가깝다. 그렇다고 심하게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결국 하나의 그림 안에서 함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전시장을 나서면서 알게 된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모여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주노동, 젠더, 노동시간, 과로사, 산재보상처럼 각자 관심을 두는 자리가 다르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통계를 읽고, 누군가는 현장의 증언을 옮기고, 누군가는 법조문을 따진다. 하나의 화음이라기보다 여러 성부가 제소리를 내는 다성에 가깝다. 그것이 별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의의가 있다. 이번 비엔날레가 다성이라는 말로 가리키려던 것도 결국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소리를 지워서 얻는 화음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남겨 둔 채로 얻는 합창 말이다.

전시를 보고 나오는 길에 떠오른 곡이 하나 있었다. 피아니스트 이진욱이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바친 <Sentimental>이다. 어긋나는 듯한 음들이 서로를 고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을 주는 음악이라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주제와 꽤나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이번 전시는 11월 1일까지 세 전시장 모두 무료로 열려 있고, 전시장 사이에는 셔틀버스가 오간다. 전시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위 음악을 한번 곁들여 보아도 좋을 듯하다. 알티